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22년 여름 · 77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2년 여름 77호

기획 / 창덕궁

- 04 | 봄을 알리는 바람
- 08 | 그들의 정원
- 12 | 헌종의 그녀

문화칼럼

- 16 | 한국 현대미술과 만다라

답사기

- 20 | 아름다움이 적을 이기느니라

회원마당

- 24 | 옹기, 세월을 담다
- 28 | 반디와 반야, 두 분은 발가락이 달랐다

박물관회 소식

- 30 | 2022년도 제11회 '국립중앙박물관회학술상' 수상자 발표

숨은전시

- 33 | 아제 아제 바라아제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발행일 2022년 6월 2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강지은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궁 회경당

봄을 알리는 바람



희정당 서행각



대조전 행각

창덕궁 전각의 창호를 열고 봄바람을 들인다. 사용하는 이 없이 겨우내 곰팡이와 습기가 숨어 살던 오래된 목조 전각에 봄빛과 바람을 들이는 일은 건물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새봄 3월, 3일간의 창호 개방 행사는 삼삼오오 모여드는 인파에 봄을 여는 차경을 선물했다. 희정당 앞 길게 늘어선 줄은 쉽게 볼 수 없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이다. 그 보답처럼 희정당 서행각과 대조전을 잇는 내부가 보이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틈이 없다. 희정당에서 하루 일을 마친 왕이 행각을 통해 침전으로 거동한다. 그 발걸음을 따르며 행각 주변 창호를 둘러보는 상상의 행복 어느 틈엔가 조선에 닿는다.

숙종1년(1675) 3월 14일 밤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과 승지, 사헌부의 대사헌이 정사를 보던 정청에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들 숙종의 왕위를 염려한 대비 김씨는 정국을 장악한 남인들과 가까운 인평대군의 아들들을 제거하고자 '홍수紅袖의 변變'을 일으켰다. 친정아버지 김우명을 통해 '붉은 옷 소매'라 불렸던 궁녀와 왕족의 간통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오히려 김우명이 무고죄에 휘말려 위기에 빠졌다. 대비는 구명을 위해 체통도 버려야 했고 숙종은 북창군과 북평군, 궁녀 상업과 귀례를 유배 보내며 일을 마무리하였다. 수렴청정도 하지 않는 대비의 막무가내 행동에 "왕대비를 조관照管하라."는 간언과 "문정왕후를 다시 보는구나." 같은 탄식이 빗발쳤다. 이로 인해 서인이 득세하고 결국 남인의 영수 윤희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다.



대조전 창호



인정전 품계석



주합루와 규장각

왕권과 신권 사이의 줄다리기는 왕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였다. 사도세자의 그림자가 드리운 정조는 고민이 더 깊었을 것이다. 즉위 1년 후 관리들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졌음을 나무라며 인정전 마당에 품계석을 세워 조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명령하였다. 새로운 분위기로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엄숙한 공간을 만들어 왕권회복의 포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즉위하면서 단행한 주합루와 규장각 설치도 마음에 품은 굳은 의지를 보여 준다. 1층에는 선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여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는데, 점차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화하였다. 2층은 천지 우주와 통하고자 주합루를 지었다. 정문 어수문에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민본의 의미를 담았다. 큰 문은 정조가, 작은 문 두 개는 신하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몸을 최대한 낮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의 형태에서 왕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조5년(1781) 규장각의 위치가 후미져 불편하자 꺾내각사로 옮겨온다. 왕권 확립과 학문 연구에 대한 정조의 의지와 관심으로 청사의 크기가 관청 중 제일이었고 내부 집기도 특별 대접을 받았다. 승지 이상의 대우를 받는 각신과 실무자인 검서관을 두어 정사를 토론하고 저술 편찬과 임금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보였다. 특히 능력 있는 서얼 출신들의 기용과 초계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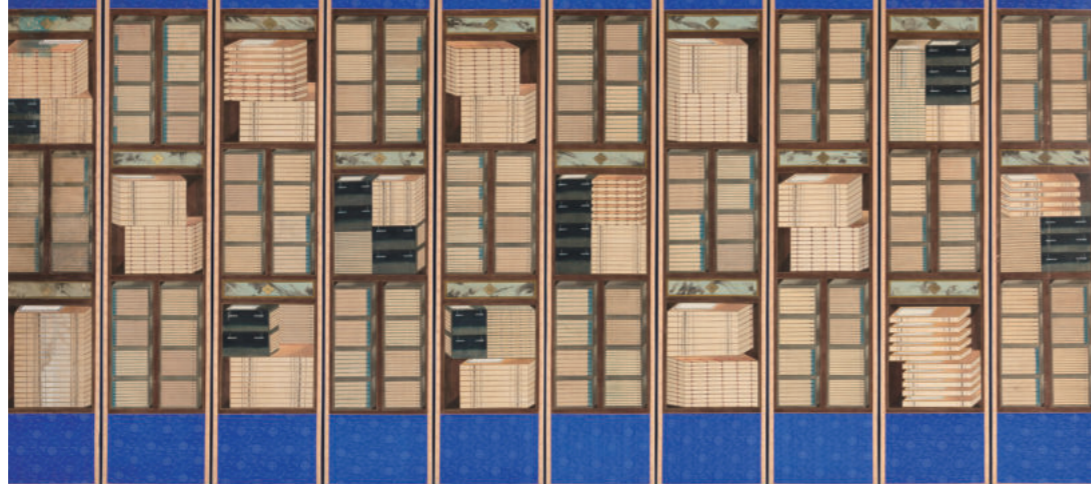
성정각 희우루



관물헌에서 바라본 성정각



존덕경 만천명월주인옹 자서



책가도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抄啓文臣 제도의 도입은 획기적이었다. 초계문신이란 과거를 거친 당하관 출신으로 37살 이하의 젊은 인재를 뽑아 왕에게 재가를 받고,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는 제도였다. 세종 때의 독서사가제와 비슷하지만 정조가 직접 참여해 강론과 채점까지 관리하니 유연하게 운용될 수 없었다. 불시에 문제를 내어 맞히지 못하면 부용지의 작은 섬에 상징적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니 초계문신들의 긴장감이 전해져 온다. 경연을 통해 가르침을 얻었던 역대 왕들과 달리 신하들을 가르치려 한 정조는 덕분에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인재를 얻었다.

현재는 집희綱熙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왕세자의 공간 관물헌이 정조7년(1783) 『승정원 일기』에 초계문신 시험 장소로 처음 등장한다. 정조는 기다리던 아들 문효세자가 태어난 1782년에 높은 월대 위에 앉은 세자의 전각, 중희당을 지었다. 세자가 어린 나이여서 친히 중희당에서 정사를 보았고 이듬해 부속건물인 성정각 관물헌에서 초계문신들에게 경서시험도 거행하였다. 원래 세자의 교육장으로 사용되던 성정각은 영현문, 인현문, 대현문, 친현문에 둘러싸여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성정각의 누각은 보춘정과 희우루라는 이중 현판이 달려 있다. 봄을 알린다는 ‘보춘報春’은 선조 때 명나라에서 선물로 보낸 자시문 옆 매화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지만 중의적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 같은 왕조의 미래를 뜻하기도 한다. 관물헌에 거처하며 책 읽기를 즐겨하던 정조 임

금은 어느 때보다 희망찬 시기였으리라. 세 살 때 중희당에서 책봉식을 치른 문효세자가 다섯 살에 홍역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보지 않은 서적이 없다.’는 정조가 재위 12년(1788)에 새로이 차비대령화원을 임명해 자신의 의중을 담은 책가도를 그리게 하였다. 3년 뒤에는 선정전 어좌 뒤에 책가도를 설치하고 신하들을 향해 이벤트를 연출한다. “어찌 경들이 진짜 책이라 생각하는가. 이것은 책이 아니고 그림일 뿐이다. 옛날에 정자가 비록 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서실에 들어가 책을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는 바 있다. (중략) 요즈음 사람들은 문장에서 추구하는 바가 나와 상반되어 그들이 즐겨보는 것은 모두 후세의 병든 문장이니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또한 이런 뜻을 부치고자 함이다.”



평우사와 존덕정



의두합과 운경거

그는 보수적인 성리학에 의해 세상이 운영되길 바라는 군주였다. 특히 과거라는 장치를 이용해 정통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담은 학자나 글을 철저히 검열하였다. 성균관 유생 이옥의 문체를 문제 삼아 벼슬길을 막아 버렸고, 박지원에게는 고전 문체에서 자유로운 『열하일기』 대신 같은 규모의 ‘기품이 높고 올바른’ 작품을 지어 올리면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홍문관 제학의 자리를 주겠노라 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 정조의 문체반정을 노론 견제의 정치적 노림수로 보기도 하지만 “18세기 이후 북경의 유리창에서 수입된 서적으로 인한 이단적 사유의 틈입을 봉쇄하기 위한 사상 탄압”으로 보는 견해에 수긍이 간다. 지식인 사회의 자유 담론으로 균형을 잡아가던 실학이 꺾이는 기로에 섰으니 말이다. 뛰어난 사상이 이덕무의 명을 재촉한 것도 정조가 출신을 언급하며 드러낸 속내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

창덕궁 후원에는 눈에 띄는 정자가 있다. 지붕이 이중으로 보이는 눈썹지붕을 엮고 천장에는 쌍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존덕정이다. 성인군주라는 자신감이었을까? 재위 22년(1798) 정조는 자신의 호를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 스스로 정하고 그 내력을 적은 현판을 존덕정에 걸었다. 정자 옆에는 행단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도 심었다. 신하들에게는 이 글을 베껴 써 오게 하여 궁중 각처에 붙이도록 명하였다. 자신의 인장에 호를 새겨 사용하였는데 밝은 달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자부심은 강력한 충성의 요구이기도 했다. 평생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



자시문 홍매

했던 정조의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정적으로 잘못 알려졌던 정치 동반자 심환지와와의 사적 편지 『정조 어찰첩』을 보면 문체반정을 일으킨 정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친 언사의 소유자이다. 잦은 병치레에도 계속된 격무와 과로, 다혈질적인 성격은 그의 수명을 재촉한 것 같다. 한 달간의 투병 끝에 1800년 6월 28일 창경궁 영춘헌에서 숨을 거두고, 창덕궁 선정전을 혼전으로 사용했다.

정조의 죽음으로 어린 왕 순조가 등극하자 외척 중심의 세도정치로 왕권 중심의 정치기반과 통치철학이 퇴색되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정조의 손자 효명세자는 과거의 폐단을 개혁하고 신진세력을 널리 등용하며 직언하는 신하를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애련지 일대를 예약정치의 근거지로 삼아 연경당을 중심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효명세자이지만 그의 소박한 가치관을 의두합과 운경거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는 문화군주로서 추존왕 9인 중 유일하게 조선조 역대 임금들의 시문을 모은 『열성어제』에도 저술을 남겼다. 효명세자의 정치 공간이었던 중희당 자리와 효명세자가 자주 머물던 독서채 평우사砵愚榭에서 어리석음을 일깨우던 그의 3년 3개월이란 시간을 읽어본다. 그 역시 전제군주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무엇보다 동궐도를 기획해 선물해준 대리군주에게는 마음이 열린다. 날갯짓하는 창호처럼. 🌸

정은정 회원



대조전 화계



인정전 화계

그들의 정원

“나의 정원을 본 적이 있을까 국화와 장미 예쁜 사루비아가 끝없이 피어 있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 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가수 고 김광석은 ‘너에게’라는 노래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 있는 정원이라고 노래했다. 한편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에는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울고 새들마저도 찢려서 떠나가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마음이 있다.

현실의 정원도 비슷한 것 같다. 주인장이 어떤 취향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의 상태와 형편이 어떤지를 보여주니 말이다. 주인장이 실의에 빠졌거나 가세가 기울어가는 집의 마당엔 벌레와 잡초가 무성하겠고, 같은 조성 비용을 들여도 과시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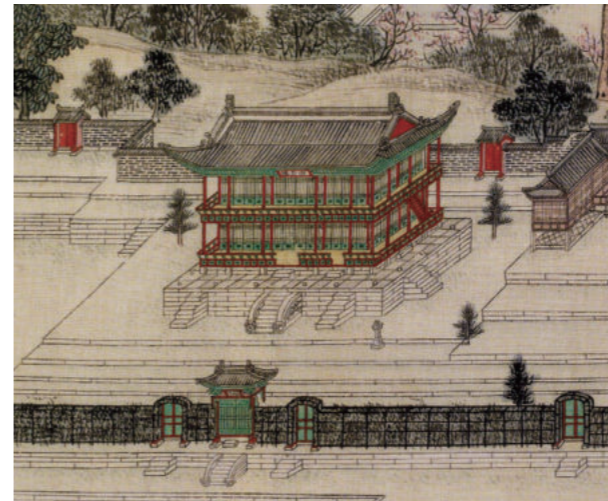
보경당 터 화계 작약



주합루 어수문과 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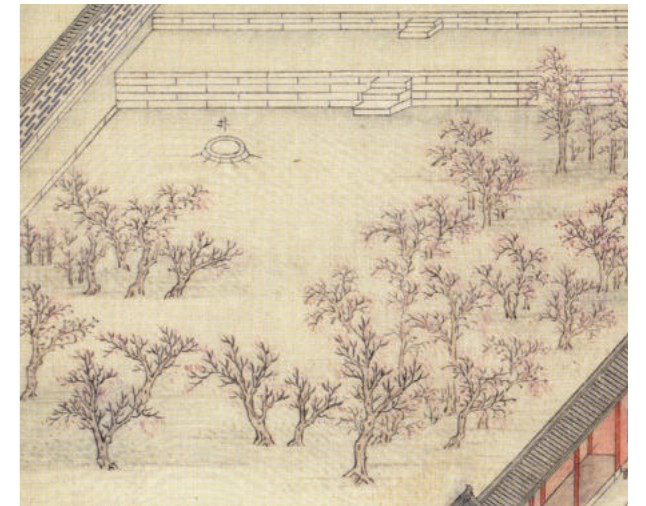
있는 사람의 정원과 성품이 소박한 사람의 정원은 판이할 것이다. 그리하니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격이 높은 전통 정원인 창덕궁에 여러 임금들의 취향은 물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들까지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이 당연하다.

정원의 기본인 연못과 정자 다음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경물은 화계(花階)이다. 전통 건축은 대체로 산을 등지고 위치하기에 뒤쪽에 생기는 경사면을 계단처럼 만들어서 정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아름답게 꾸민 담과 후원으로 연결되는 예쁜 문, 굴뚝, 그리고 앵두, 진달래, 작약 같은 철따라 피는 꽃과 나무를 심은 대조전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대체로 화계를 만들지 않는 정전인 인정전 뒤에는 꽃 대신 조릿대를 심은 특이한 화계가 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주변 지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뒤에 다른 전각이 아니라 경사지에 숲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전인데 꽃나무를 심기엔 격이 안 맞으니 흙을 잘 잡아주며 사철 푸르기까지 한 조릿대를 심은 것이다. 궁궐 정도 되면 뒤쪽 구릉을 밀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창덕궁이 법도보다는 주변 환경을 잘 살려 건축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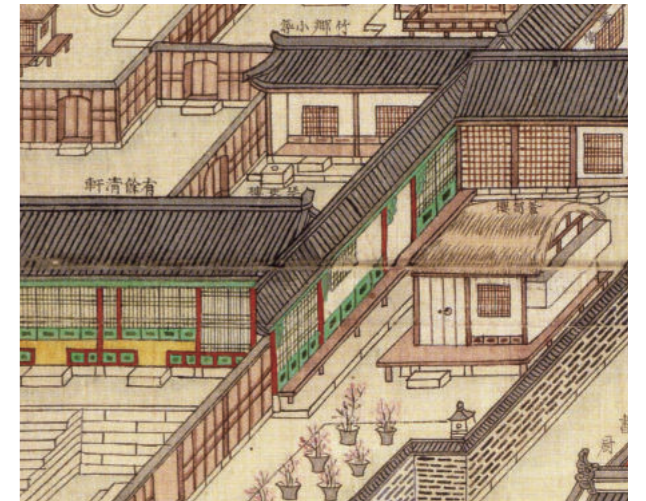


동궐도, 주합루와 취병,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9세기의 창덕궁 모습을 볼 수 있는 동궐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초록색 생울타리는 취병(翠屏)이라고 부른다. 사계절 푸른 비취 병풍같은 담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소나무, 측백, 사철나무, 향나무 같은 상록수를 심어서 만들었다. 정조 때 궁궐의 취병 만드는 장인을 자기 집 공사에 불렀다고 탄핵당하고 귀양 간 고위관리가 있을 정도였으니 궁궐의 취병은 정원 꾸미는 사대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나 보다. 망국의 풍상을 겪으면서 없어졌던



동궐도, 복사꽃(연영합 화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동궐도, 창순루(초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취병을 조릿대보다는 약간 크고 화살 만들 때 쓰기도 하는 이대를 써서 복원해 놓은 것을 주합루에서 볼 수 있다.

멋진 받침을 만들어서 정원에 전시해놓은 괴석은 서양의 정원과 구별되는 동아시아 정원의 특징이다. 유럽 궁전 정원 곳곳의 대리석상 대신에 괴석이 있는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괴석은 자연의 축소판이고 석상들은 인간사의 축소판이란 것? 전국에서 멋진 돌들을 모으고 거기에 중국의 태호석 등 비싼 수입 괴석도 들여왔을 것이다. 그 밖에 동결도를 살펴보면 현재 낙선재 자리에는 복사꽃이 만발한 과수원이 있었고, 관물헌 옆에서는 꽃나무 화분이 늘어져 있는 등 온실로 추정되는 창순루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은 당대 최고의 정원인 창덕궁 후원에서 인공물은 전체의 백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결도 창덕궁 나무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동결도에는 건물이 있는 면적보다 나무가 있는 면적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멍했다. 동결도 실물을 본 적도 있고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늘 건물만 봤던 것이다. 바로 팸플릿에 있는 동결도를 펼쳐보니 온통 초록, 초록에 봄 버드나무의 노랑과 복사꽃의 분홍색이 있었다. 지도 앱을 켜서 위성사진을 보면 정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뒷산 같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려서 안목이 없을 땐 창덕궁 후원은 그냥 산에 연못이랑 정자 몇 개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이해가 안 났더랬다. 이후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서 베르사유나 알람브라, 이화원처럼 명성 높은 왕실 정원에 감탄했었다. 최고 권력자의 능력과 안목을 반영하여 당대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현한 곳이니.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창덕궁 후원에 다시 서니 그 제야 이곳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한 아름다움. 굳이 뭘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에 볼 것이 많으니 많이 손댈 필요 없이 사방이 뚫린 작은 정자나 지어 앉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정말 실용적이다.

정문인 돈화문에 들어서면 번개 치듯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회화나무들이 눈에 띈다. 중국 주나라 때 삼공三公의 자리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었다는, 고관의 품격을 상징하는 이 나무 옆을 지나며 관리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한편으론 학자수學者樹라



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뭇가지 뺨은 모습이 학자의 기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마침 이 나무 꽃이 피는 시기가 중국의 과거 철인 8월이라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사대부가 이사를 하면 앞에는 회화나무를 심어 학자가 사는 곳임을 천명하고 뒤에는 공부할 때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많이 짤 수 있는 쉬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역시나 후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쉬나무를 찾아볼 수 있다.

후원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경영하는, 정원이기보다는 원림이지만 새로 나무를 심을 땐 회화나무가 그러하듯 결코 허투루 심지 않았다. 대체로 유실수를 많이 심으면서도 조상을 생각나게 하는 밤나무, 학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제례를 상징하는 향나무 등 의미를 살피며 심었다. 기록상으로 조선 초에 후원의 대세를 이루는 나무는 뽕나무였던 것 같다. 세종 때 기록엔 뽕나무가 창덕궁에만 1000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뽕나무로 왕비는 친잠례를 하며 양잠을 권장했다. 이후 성종도 뽕나무를 심으라고 명했다 하니 관람지 가는 길에 있는 400년가량 된 천연기념물이자 창덕궁에서 가장 오래된 뽕나무는 그때 심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 아들인 연산군이 주변 민가를 대거 철거하고 후원을 넓힌 다음 담을 쌓고 사냥을 즐겼으며 말년엔 자기가 좋아하는 영산홍 1만 그루를 심었다는, 역시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도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광해군이 다시 꾸며놓은 후원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연못과 정자들을 만들고, 옥류동을 개척하여 옥

류천 권역을 꾸민 이는 인조이다. 반정으로 왕좌에 올라 수차례 반란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가족까지 견제해가며 왕위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던 그의 굴곡진 생애를 생각하니 후원을 가꾸고 거기에 거하면서 잠시 시름을 잊어보려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군주의 자리가 원래 힘든 자리이긴 하지만 조선의 왕은 유독 극한 직업이었다. 능력이 출중한 왕은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능력이 없으면 신하들에게 시달린다. 후원에 들어섰을 때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만 있는 곳에서 잠시 궁을 떠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궁궐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는 궁중의 여인들도 이 원림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위안을 받았으리라.

후원 곳곳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전쟁을 겪으며 퇴락했던 궁궐 후원에 큰 고양이인 표범이 활보했다는 글을 봤던 것이 생각났다. 동결도에서 많이 보이는 소나무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방치되면서 관리를 하지 못해 느티나무나 떡갈나무 등으로 식생이 바뀐 탓이라고 한다. 사실은 손을 댔지만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역시 정원도 마음도 애써 가꿔야 하는 것인가 보다. 🐾

서유미 회원

현종의 그녀

북악산 왼쪽 봉우리인 응봉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창덕궁은 태종5년(1405)에 지었다. 선조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타 버린 뒤 광해군 때에 재건된 창덕궁은 1867년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조선의 법궁 法宮 역할을 했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살았던 궁궐이기도 하다. 창덕궁 안에는 단청을 하지 않고 구조도 일반 사대부의 살림집과 비슷한 건물이 두 곳 있다. 후원의 연경당과 남동쪽 끝에 있는 낙선재이다.

연경당은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가 아버지를 위해 순조28년(1828)경에 지은 집이다. 낙선재樂善齋는 현종이 1847년에 지었는데 책을 읽고 서화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 마련했다. 이 해 현종은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는데, 다음 해인 1848년 낙선재 바로 옆에 석복헌錫福軒을 지어 그녀의 거처를 마련해 준다. 석복헌은 '복을 내리는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복이란 대를 이을 세자를 말한다. 옆 건물 수강재壽康齋는 정조9년(1785) 문효세자의 독서 장소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현종이 할머니인 대왕대비 순원왕후를 위해 새로 고쳤다.

현종은 조선 최고의 미남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종실록」에는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금석金石 같은 큰 목소리를 자랑했다.”고 표현되어 있다.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에 꿀보이스였다는 말이다. 조선의 마지막 간택후궁이었던 경빈 김씨는 “예쁘고 순진하며 온순 검소했다.”(경빈 김씨 묘비문)고 한다. 두 사람의 혼례에 대한 기록은 『경빈가례시가례청등록』에 남아 있는데 1847년 8월 4일의 초간택부터 10월 21일의 가례까지 세 달이 넘는 동안 치러졌다. 왕비의 혼례와 달리 후궁은 신랑 없이 혼자 가마를 타고 궁궐에 들어와 국왕을 만났다. 신랑 신부가 처음 술잔을 나누는 동뢰연도 왕비와 달랐다. 「동뢰연배설도」를 보면 '이성지합 백연지원 二姓之合 百緣之願'이란 글자를 가운데 두고 왕과 경빈이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왕은 북쪽에서 남향을 하고 경빈은 남쪽에서 북향을 하고 있다. 절도 맞절이 아니라 경빈 홀로 사배四拜를 한다.

낙선재의 주인공인 현종과 경빈 김씨의 사랑은 조선 왕실 최고의 로맨스로 유명하다. 심지어 경빈 김씨가 계비 삼간택 때 떨어졌으며 현종은 대비와 대왕대비가 뽑은 효정왕후보다 김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삼 년 뒤 후궁



낙선재 장락문



낙선재 월문



낙선재 보소당

으로 뽑았다는 야사도 전한다. 그러나 1844년의 간택단자에는 김씨의 이름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채인 낙선재와 궁궐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거처 수강재 사이에 경빈이 머물 석복헌을 짓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까이 했던 것을 보면 현종이 가장 사랑한 여인임은 맞는 것 같다.

낙선재의 정문은 장락문長樂門으로 편액은 흥선대원군의 글씨라고 한다. 장락문에서 바라보면 낙선재 본채와 사랑채, 후원의 정자 상량정이 겹겹이 드러나는 장관이 펼쳐진다. 서쪽 끝 한 칸은 앞으로 돌출시킨 누마루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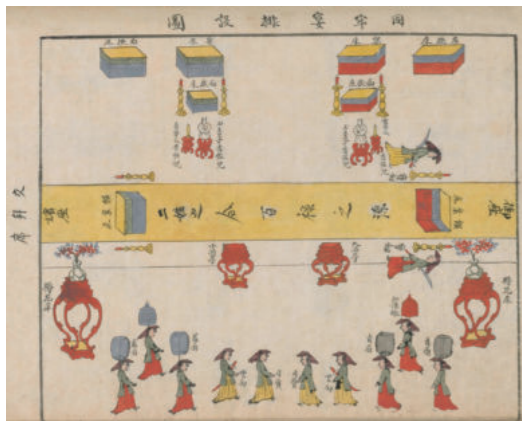
석복헌

그 옆으로 2칸 대청이 있고 다시 2칸 온돌방을 두었으며 가장 동쪽 칸은 마루방이다. 누마루 아래 아궁이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에는 현대의 추상화처럼 보이는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얼음이 갈라지는 모습이라 하여 빙렬氷裂문양이라 하는데 장식 효과와 함께 화재를 경계하는 의미도 지닌다. 문창살의 무늬가 모서리용문양, 박쥐문양, 당초문양 등 다채롭고 섬세하며 누마루 안쪽 방의 동그란 문도 아름답다.

“현종은 스스로 한묵을 즐겼고 궁중에 소장된 그림을 화가들에게 내보이며 품평하였을 정도로 서화 완상에 심취한



낙선재 아궁이 빙렬무늬 벽



동뢰연배설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낙선재 편액



수강재 취운정



석복헌 한정당



낙선재 후원 만월문



낙선재 후원 꽃담

인물”이었다. 헌종의 후원을 받았고 여러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던 화가 허련이 『소치실록』에 남긴 글이다. 조선 왕실의 대표적 서화 애호가이자 컬렉터였던 헌종답게 낙선재에는 두 개의 편액과 21개의 주련이 걸려 있다. 낙선재 편액은 김정희의 친구인 청나라 금석학자 섭지선의 글씨이고, 주련 중에는 김정희의 스승 옹방강의 글씨도 있다. 대청마루 오른쪽 방의 이름은 보소당寶蘇堂인데, 소동파를 보배로 본받는다는 뜻이며 옹방강의 당호이기도 하다. 이 방에는 헌종이 수집한 700여 개의 인장을 보관했던 ‘보소당인존장’이 있었다.

건물 뒷마당에는 화계가 있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언덕 위로 정자가 딸린 후원이 있다. 낙선재의 상량정, 석복헌의 한정당, 수강재의 취운정이 그 정자들이다. 취운정翠雲亭은 「동궐도」에 등장하는 낙선재의 가장 오래된 정자인데 숙종12년(1686)에 지었다. 서쪽과 동쪽에 널빤지로 만든 담장을 두르고 그 바깥쪽에 취병을 놓고 아치문을 만들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건물로 가장자리를 둘러싼 뒷간이 있고 안쪽에 온돌방이 2칸 있다. 취운정의 동쪽 문을 열면 창경궁 함인정이 내려다보인다. 서쪽 문으로 들어가면 한정당閑靜堂이 나온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아담한 건물이다. 누마루 창문에 창호지가 아니라 유리를 덧대었고 난간 모서리에 오얏꽃 문양 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17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한정당의 서쪽 문을 나서면 상량정上涼亭이다. 시원한 곳에 오르는 이름에 걸맞게 정자에 앉으면 탁 트인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자리다. 육각 돌기둥 위에 지은 육모정으로 경복궁 향원정만큼이나 화려하다. 1828~1830년 사이에 그린 「동궐도」에는 없으나, 헌종15년(1849) 낙선재를 방문한 화가 허련이 남긴 기록에는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지은 듯하다. 당시 이름은 평원루平遠樓였다. "먼 나라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으로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한 당시 상황을 볼 때 여러 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 본다. 옹방강의 아들 옹수곤의 글씨를 모아 만든 평원루 편액은 지금 고궁박물관에 있다.

상량정 서쪽 담에는 월광문月光門이라 부르는 만월문이 있고, 이 문을 나서면 승화루承華樓가 나온다. 여기부터는 낙선재가 아니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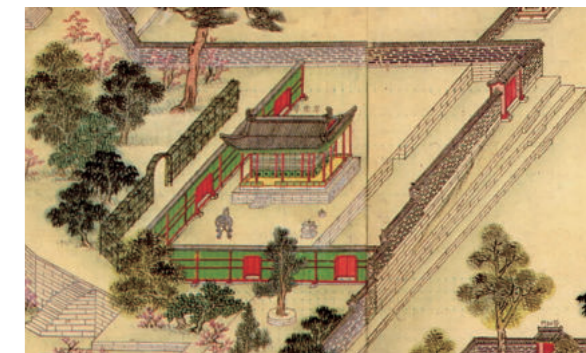
궁에 속하는 영역이다. 승화루는 정조6년(1782)에 서화 수장고와 세자의 도서관 용도로 지었으며 1층은 의신각儀宸閣, 2층은 소주합루小宙舍樓라 불렀는데, 헌종이 낙선재를 지으면서 이름을 승화루로 바꾸었다. 정화精華를 잇는다는 뜻으로 많은 책과 글, 그림을 수집해 그 빼어난 정수를 이어받겠다는 뜻이다. 실제 헌종이 남긴 『승화루서목』에는 3,742권의 책과 665점의 서화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승화루와 연결된 육각정은 삼삼와三三窩이다. 소박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실제 건물은 아주 화려하다. 겹처마에 난간을 둘렀고 난간 아래에도 장식을 붙였다. 기단의 벽면도 거북이 등껍질 문양으로 장식했다. 칠분서는 중희당과 삼삼와를 연결하는 복도인데 건물 이름을 붙이고 분합문과 난간을 설치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다. 기역자 모양의 6칸짜리 건물이다. 「동궐도」를 보면 세자의 정당正堂인 중희당과 칠분서, 삼삼와, 승화루의 자연스런 연결을 찾아볼 수 있다. 1891년 이 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중희당 자리는 지금의 창덕궁 후원 입구 매표소 앞이었는데, 바닥에 돌로 건물 위치를 표시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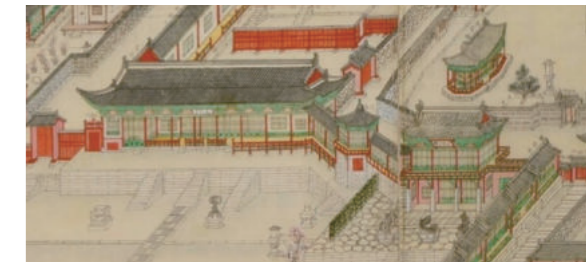
이렇게 온갖 정성과 세심함을 다해 낙선재를 지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2년이 채 안 된 1849년 6월 헌종이 스물세 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경빈 김씨는 헌종이 죽은 뒤 궁에서 나와 현재의 안국동 태화관 터에 있던 순화궁에서 살다가 광무11년(1907) 6월에 76세로 생을 마쳤다. 고종은 김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직접 제문을 지었다.

그런데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대한경빈김씨묘지」에는 “입궁 후 60년 동안 궁에서 생활하면서 순원, 신정 두 대비를 잘 모시고 중궁인 효정왕후와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949년 서삼릉 후궁 묘역으로 이장한 경빈 김씨 무덤의 원위치를 71년 동안이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2020년 6월에 밝혀진다. 남양주 휘경원 근처로 추정됐던 경빈 김씨 무덤의 원래 자리가 실은 경기 고양군 송인면 휘경리(현재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로 밝혀진 것이다. 🐼

길문숙 회원



동궐도, 취운정,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궐도, 중희당 권역, 고려대학교 박물관



칠분서와 삼삼와



낙선재 상량정

한국 현대미술과 만다라

해마다 완연한 봄이 되면 전국의 거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연등이 걸린다. 어두운 밤 은은한 연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부처님의 지혜나 가피加被에 관해 모르는 이들조차 절로 마음이 안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때다. 불교는 이처럼 오랜 시간 한국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정신세계의 저변을 형성해 왔다. 그렇기에 한국인이라면 비록 자신의 종교가 아니어도 불교와 그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현대에도 계승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으로 간주한다. 이런 태도는 한국의 예술인들, 특히 해방 이후 등장한 현대미술 작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간 많은 현대미술 작가가 불교적 전통을 첨단 미술 양식 및 매체와 결합하려 시도해 왔으며, 이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술사적 가치를 획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작품에서 어떤 불교적인 특징을 만날 수 있을까? 사찰에 장식된 단청丹靑이나 연화문蓮花紋처럼 잘 알려진 불교미술 모티프 외에, 불교적 주제 혹은 소재로 한국의 여러 현대미술 작품에 꾸준히 등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만다라曼荼羅를 들 수 있다.

만다라는 본질本質, 중심中心을 뜻하는 만다(Manda)와 소유를 뜻하는 접미사 라(la)가 합쳐진 말로 '본질을 소유한 것', 또는 '중심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다시 말하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되는데 바로 그 진리를 표현한 것이 만다라다.¹⁾ 만다라는 본래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密敎²⁾에서 명상이나 기복, 결혼 등 각종 의례를 위해 이용하던 도구로서, 토단土壇 위에 물감과 모래 등을 사용해 그렸다 지우는 일시적인 만다라와, 불교 신앙의 내용을 통일적 원리에 따라 상징적으로 재현한 항구적인

불화佛畵로서의 만다라로 나뉜다.³⁾ 석가의 성도상成道相, 설법상說法相을 묘사한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등은 한국 특유의 탱화幀畵로서의 만다라이며,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의 <화장찰해도華藏刹海圖>는 『화엄경』의 우주관을 압축해 묘사한 만다라로 잘 알려져 있다. 만다라는 부처의 득오得悟의 경지를 현실에서 구현한 성역 공간으로, 석가모니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아닌 성불成佛을 염원하는 중생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신성한 세계이다.⁴⁾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만다라를 자신의 작품 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는 주로 추상 화가들이었다. 간송濶松 전형필(全鏐弼, 1906~1962)의 뒤를 이어 간송미술관 관장을 지냈던 우송雨松 전성우(全晟雨, 1934~2018)는 미국에서 추상 미술을 공부하던 때 불교 교리와 그 미술을 접하면서 <8월 만다라>(1959), <진기眞器 만다라>(1960) 같은 <만다라>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가 석사 과정을 밟았던 밀스 컬리지(Mills College)에 만다라 컬렉션이 있었는데, 지도 교수의 권유로 이를 연구하며 본인 예술의 화두로 만다라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성우의 <만다라> 연작은 이후 자연, 시詩, 노래, 진리, 고대, 동방, 전통, 꿈, 여행, 기쁨 등의 개념과 만나며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중 작가가 가장 아꼈다는 작품 <공간 만다라 No.2>(1965)는 검은 배경 위를 부유하는 다채로운 색상과 비정형적 형태의 추상 이미지로 삼라만상의 우주를 가시화하고 있다. 그의 추상회화는 또한 삼각형 구조의 색띠가 반복적으로 표현된 <색동 만다라>(1967)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다라 불화에서의 색채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만다라에서 색채가 중요한 이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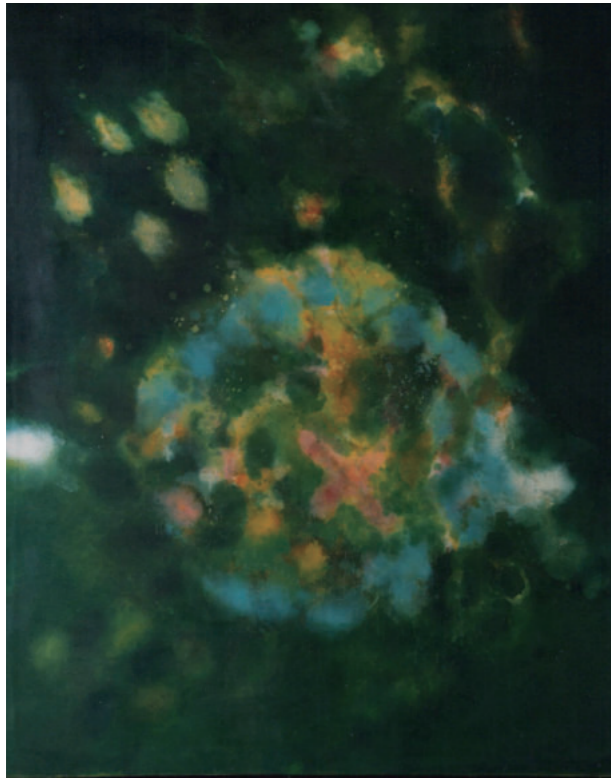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 <화장찰해도華藏刹海圖>

진여眞如라는 절대 진리의 세계는 색色⁵⁾ 즉 모든 표현을 끊은 상태지만, 그 세계를 표현하려 할 때는 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⁶⁾ 선종禪宗에서는 현실적인 색상을 부정하는 데 비해 현상계를 인정하는 밀교는 색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불교의 주류 종파는 선종이었으나, 단청이나 탱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찰을 장엄하는 장식은 여전히 밀교적 사고를 따르고 있다. 전성우의 <만다라> 연작은 그러므로 색이라는 현실의 사상事象을 통해 곧바로 우주의 진실상眞實相을 직관直觀하고자 한 화엄밀교의 도해로도 해석될 수 있다.

1950년대 말 '현대미술가협회'의 창립을 주도하며 한국의 앵포르멜 추상미술 운동을 선도한 청화靑華 하인두(河麟斗, 1930~1989) 역시 다수의 <만다라> 연작을 통해 불교적 주제를 탐구한 화가이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불교 사상의 연구에 몰두하는 동시에, "산사의 이끼 낀 돌을 밟아 보고, 절간 뒷벽의 빛바랜 단청이나, 암자 속의 원색 탱화를 두루 살펴⁷⁾보면서 불교적 내용을 추상적으로 조형화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만다라曼荼羅>(1974), <묘환妙環>(1977), <묘계환중妙契環中>(1979), <밀문密門>(1978), <피안彼岸>(1979), <미륵彌勒의 얼굴>(1975), <미륵彌勒>(1977), <인간만다라人間曼荼羅>(1975) 등 불교적 내용을 담은 수많은 작품이 탄생했다.

1) 밀교에서는 만다라를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낱낱의 삶이 바퀴 축에 모여 둥근 수레 바퀴圓輪을 이루듯, 모든 법을 원만히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다.
 2) 밀교란 불교의 비교秘敎를 이르는 말로써 비밀 불교秘密佛敎라고도 한다. 다신교적, 힌두교적 요소를 불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으며,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경전으로 삼아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밀교 수행은 만다라를 통해 구현된 대승불교의 사상을 진언眞言과 도상圖像을 통해 관상해 자신의 심성과 육체에 실현하는 것이다. 정성준, 「선과 밀교의 소통에 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제29권, 2009, p. 237.
 3) 복해숙, 「만다라의 예술적 조명」, 『東國思想』, 제29집, 1998, p. 170.
 4) 홍윤식, 『만다라』, 대원사, 1992, pp. 6-8.
 5) 여기서 말하는 색이란 색채와 형태를 모두 뜻하는 것이다.
 6) 홍윤식, 『만다라』, 대원사, 1992, pp. 111-112.
 7) 하인두, 『청화수필』, 청년사, 2010, p.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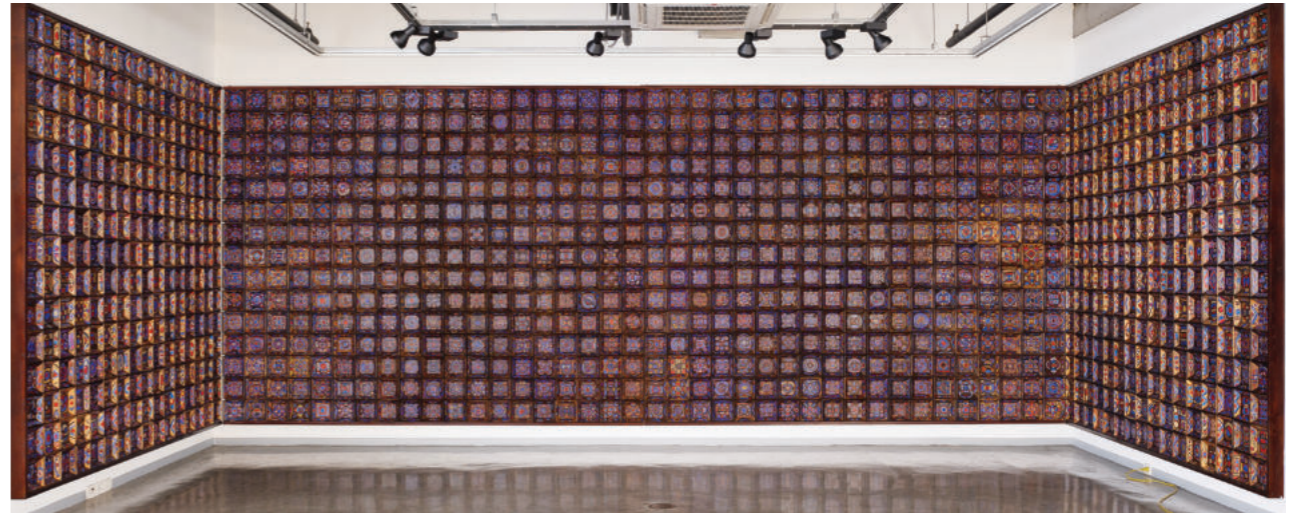
전성우, <공간 만다라 No.2>, 1965, 캔버스에 유채, 161×132cm, 개인 소장

하인두는 <만다라> 연작에서 여러 불화(만다라)가 지닌 공통의 조형적 성격인 중심성, 복수성, 조화성 등을 화면 위에 추상적 형태로 재현해 냈다. 대체로 만다라 불화의 중앙에는 본존불에 해당하는 중심적 존상尊像이 자리해 신성한 세계를 대표하는데, 초창기 하인두의 추상회화에서 이미 화면 중앙의 사각형을 중심으로 원심적 구도가 등장한다. 또 복수의 부처와 보살상이 화면 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만다라의 형태 역시 <만다라>(1980년대)를 비롯한 작가의 여러 작품에서 추상으로 이미지화되어 탐구되었다. 하인두는 평생 자신의 <만다라> 연작을 부처의 진리의 본질을 현실에서 드러내는 영상影像으로, 그것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교의 영성적靈性的 체험을 위한 의례로 여겼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추상회화를 불교 수행의 이상적 경지인 삼매三昧의 상태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한편 일평생을 통영에서 거주하며 추상이라는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미술 양식을 '지방화'와 '토착화'의 수단으로 삼았던 전혁림(全赫林, 1915~2010)은 대표작 <새(new) 만다라>(2007)를 통해 현대 추상미술과 불교미술을 '장식'으로 연결해 냈다. 작가는 민화民畵, 단청, 탕화 같은 전통 미술과 민예품의 이미지를 재해석함으로써 특유의 색채 추상미술을 수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상회화가 속한 '순수미술'과 불화나 민화가 속한 장식으로서의 '응용미술'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 독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무려 1,050개의 목기에 그려진 각각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벽화를 이룬 전혁림의 <새 만다라>는 사찰의 법당 천장 우물반자에 그려진 단청 문양을 연상시킨다. 4년 8개월에 걸쳐 완성된 그것은 작가 일생의 모든 추상 모티프가 총망라된 추상회화인 동시에, 불교미술의 장식裝飾으로 바쳐진 장엄莊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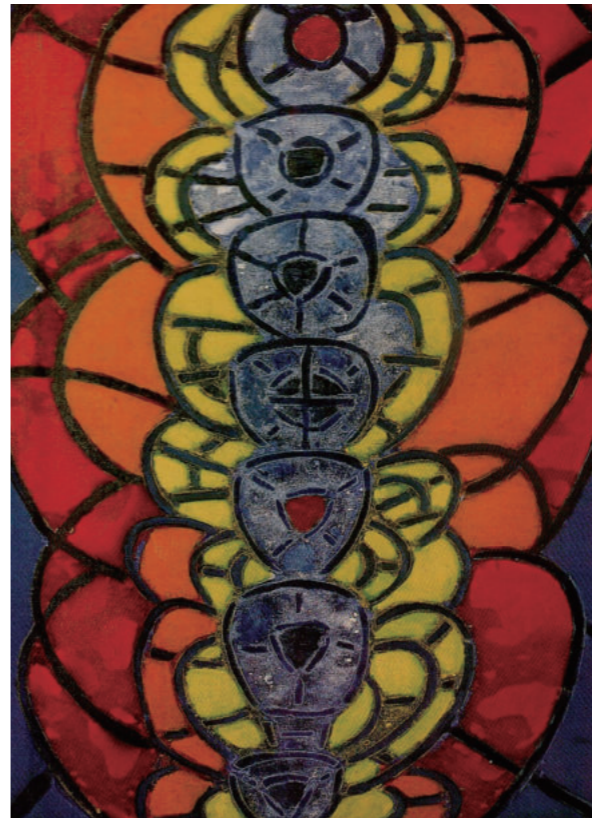
다시 말해 <새 만다라>는 만다라가 상징하는 화엄華嚴 사상의 본질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장식과 추상이 아무런 결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며 서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이자, 작가가 평생 추구했던 '작업의 태도로서의 혼재混在'이 추상이라는 미술 형식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시각 예술에서 장식은 사물의 '표면'에 보이기에 '깊이' 있는 내적 의미가 없는 것, 심지어 걸치레를 위한 가식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그러나 전혁림은 <새 만다라>를 통해 과연 표면이 대상 내부의 진정성을 가리는 피상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자 했다. 작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장식이 현대 추상회화로서 불교적 사상思想을 구현할 수 있음을 역설해 보였다.

인간이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삶의 한계를 자각하는 한, 그는 종교적인 존재이다. 즉 굳이 초월과 완전함을 갈망하지 않더라도, 실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인간성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인간의 전 자세가 종교적 지향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교의 만다라에서 영감받은 전성우, 하인두, 전혁림 작가의 작품들은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예술의 범주를



전혁림, <새 만다라>, 2007, 나무(목기) 1,050개에 유채, 각 20×20cm, 개인 소장

벗어나 있다. 그들의 예술은 작가 개인의 종교적 탐구의 과정을 드러내는 사적 언표言表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구체적인 성상을 재현하지 않는 추상회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의 종교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특정 '종교(religion)'라기보다는, 존 듀이(John Dewey)의 설명에서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믿음(common faith)'으로서의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하인두, <만다라>, 1980년대, 캔버스에 유채, 91×65cm, 개인 소장

듀이에 따르면 개별적인 제도로서의 '종교'는 인간보다 고차원적인 힘을 지닌 존재에 대한 복종 및 숭배라는 속성에 제한된다. 그러나 '종교적인 것'의 개념은 일상적 삶이라는 유기체적 경험을 통해 영생의 문제를 탐구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불교적인 것'으로서의 만다라를 도입해 추구하고자 한 것은 결국 이 같은 성격의 예술 경험이 아니었을까. 이들 작가와 관람자가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번민을 해소하고 스스로 참된 자아를 발견해 나간 일야말로, 불교적인 현대 추상회화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일 것이다. 🍄

조수진(미술사학자, 성신여대 초빙교수)

8) 장엄莊嚴은 불상이나 불전, 사원의 가람 전체, 건축 세부, 각종의 장엄구莊嚴具 등을 채색, 문양 등으로 장식 미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엄 형식은 불교미술의 중요한 요소로, 예배자의 감성을 통해 공덕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9) 김주원, 이인범, 『전혁림: 다도해의 물빛 화가』, 예술사 구술 총서 002, 수류산방, 2011, p. 215.

10) 정순복,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이론에서 종교와 예술의 문제」, 『미학』, 제35집, 2003, pp. 417-418.



●●● 답사기 ●●●

화홍문(북수문)

아름다움이 적을 이기느니라

수원화성은 어디서 출발해도 한 바퀴 빙 둘러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화강암과 벽돌과 흙으로 쌓은 성곽의 길이는 5.7km로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린다. 기록에 의하면 수원화성에는 48개의 시설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41개의 시설물이 남아 있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용릉으로 옮기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원화성 성곽을 축조하였다. 수원화성을 2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학자인 정약용이 당대의 최첨단 기자재인 거중기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화성을 지

으면서 성의 형태는 물론 성을 쌓는 방법과 재료까지 「화성성역의궤」에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데, 그 덕분에 세월과 전쟁을 겪으면서 훼손된 건축물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다. 그 점을 인정받아 복원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성곽 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다.

4개의 성문을 비롯해 41개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모양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수문에서 바라본 동남각루

성곽을 돌아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에 취해 건물 하나하나, 성곽 한 땀 한 땀의 공에 감탄과 감동이 절로 나온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성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정조는 자신의 꿈이 담긴 이 성곽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으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신하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드는 성을 굳이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정조는 '아름다움이 적을 이기느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조는 적들의 기를 이 아름다움으로 꺾어보려 했을까.

수원화성은 아름다움을 넘어 동양 성곽 건축의 백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성곽의 내벽은 자연의 지세인 흙을 이용하여 만들고 외벽은 벽돌로 쌓은 점인데, 이는 대포의 포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그 때문에 성벽 안쪽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와 함께 성 안과 밖의 도시 전경을 한눈에

두루 조망할 수 있다. 성벽 바깥쪽에서는 돌과 벽돌로 쌓은 돌출된 치성 위에 세워진 건축물의 외관을 볼 수 있는데, 각 건축물들의 모양이 다른 점을 파악하는 것도 흥미롭거니와, 내벽과 외벽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벽을 따라 감상하고, 다시 외벽을 따라 감상해야 완벽한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건축물들의 기능을 알아 가는 것도 흥미롭다.

수원화성은 피난처라기보다는 평상시에 거주하는 읍성으로 방어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방어시설을 갖추고 망루는 물론 총구명도 설치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등 성곽의 용도가 다양했다. 팔달산 정상에 군사지휘소인 서장대를 두었으며 맞은편 높은 곳에 외부와의 통신시설인 봉수대(봉돈)를 벽돌로 만들어 세웠다. 성의 남북에는 팔달문과 장안문, 동서로는 창룡문과 화서문을 세우고 남서와 동북 방향 높은 지대에 각기 서남각



장안문 야경



서장대



서북공심돈과 화서문



방화수류정과 용연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 내부



서북공심돈

루(화양루)와 동북각루(방화수류정)를 세워 비상시 군사 요충이 되도록 했다.

각루인 방화수류정은 전시에는 적군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평시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수원화성의 4개 각루 중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방화수류정은 뛰어난 건축미로 수원화성에서 손꼽히는 절경이다. 군사시설이지만 아름다운 용연과 함께 있어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많이 쓰였다. 방화수류정에는 임금을 위해 2층에 온돌방을 두고 창문을 설치했다고 한다. 정조는 성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원천 위에 세운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일대를 몹시 사랑하여 무지개다리에서 흘러내린 맑은 폭포수가 옥같이 부서지는 풍광을 즐겼다고 한다. 옛 사람들이 보았던 옥처럼 부서지는 물보라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일곱 개의 무지개다리가 받치고 있는 화홍문은 여전히 아름답다.

공심돈의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화성에는 동북공심돈과 서북공심돈 2개가 있다. 공심돈은 군사가 안으로 들어가 적을 살필 수 있게 만든 건축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원화성에서만 볼 수 있다. 특히 서북공심돈(보물 제

1710호)은 축조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건축학적으로도 멋진 전경을 보여준다. 웅장하면서도 빼어나게 아름답다.

화포를 감추어 두었다가 공격하도록 만든 포루砲樓 5개와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포루舖樓 5개의 미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다. 성벽에서 돌출된 치성 위에 세워진 이 포루들은 창문과 지붕 등이 저마다 다른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움을 견주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수원화성은 현재 팔달문 좌우의 성벽을 제외한 전체 성벽이 연결된 상태이다. 성곽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성곽 전체가 시야에 들어온다. 시간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 다양한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빠져들다 보니, 아름다움이 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조의 탁월한 혜안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독보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갖게 된 것이리라. 🐼

강현자 회원



장안문



동쪽 성곽과 봉돈



동암문



동암문에서 바라본 동북포루



북포루



서남암문과 서남포사



장독, 울산옹기박물관

옹기, 세월을담다

오랫동안 베란다에 내버려 둔 항아리들을 물끄러미 쳐다 보자니 함께한 세월이 떠오른다. 생각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고향집 장독대에 가 닿는다.

별 좋은 날 젊은 어머니가 허리 숙여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물행주질하고 있다. 숨바꼭질하는 꼬마둥이 형제들의 모습도 겹쳐진다. 마당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며 숨을 곳을 찾다 커다란 항아리 뒤에 잔뜩 웅크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는 어린 나도 있다. 그처럼 친숙했기에 옹기의 투박하고 수수한 멋이 주는 푸근한 정겨움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옹기는 아련한 그리움이자 소중한 추억이었다.

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아울러 이르는데 질그릇은 진흙으로만 만들어 유약을 입히지 않고 구워 윤기가 없고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검은 연기, 검댕이 입혀져 검은 회색을 띤다. 오지그릇은 질그릇에 유약을 입혀 구운 것으로 윤기가 나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옹기는 대부분 오지그릇을 가리킨다.

옹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숨 쉬는 그릇'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통기성을 들 수 있다. 옹기의

태토에는 수많은 작은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어 옹기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만든다. 이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들어 안에 담긴 음식물의 발효를 돕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발효 식품을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숙성,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방부 효과 또한 뛰어나다. 이는 옹기가 가마에서 구워질 때 입혀진 검댕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잿물에 들어가는 재도 방부의 효과를 높여 준다. 때문에 옹



항아리, 국립민속박물관

기는 된장, 간장, 김치, 젓갈 같은 발효 식품을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언제부터 옹기가 쓰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삼국 시대 이후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토기는 점차 단단하고 가벼운 도기로 발전해 음식물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모양도 오늘날의 독과 비슷하며 '옹'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고 한다. 4세기 고구려의 안악 3호분 벽화에서 오늘날의 모습과 유사한 항아리와 자배기, 시루 등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풍속화에는 다양한 모습의 옹기들이 그려져 있다. <서당>이라는 그림에 그려진 마당 한 칸의 장독대 모습이 낯설지 않다. 장독



고구려 안악 3호분 동측실 북벽의 우물, 남북역사학자협회

대에 놓인 옹기의 형태나 쓰임새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19세기에 활동한 기산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첩」에 실린 그림들을 통해 당시의 가마와 옹기점, 옹기 제작 모습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속의 가마는 지금도 옹기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앞뒤가 뽕 풀린 뽕불통가마이다. 그림 속 옹기 장이는 발로 물레를 차면서 독을 만들고 있는데 독 안의 긴 줄은 커다란 독을 만들 때 흙을 말리기 위해 솥을 넣은 부드러운 장치이다. 이런 모습은 1960~1970년대의 옹기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 풍경이었다.

옹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태껏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문양이 달리 보인다. 옹기의 문양은 손가락으로 그리는 수화문, 손끝으로 눌러 문양을 새기는 손띠문, 가느다란 흙피를 덧붙이는 목질띠문 등 다양하다. 이 중 수화문은 오직 옹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양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옹기 장인의 손과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낙서하듯 대충 쓱 그은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유약이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수화문을 많이 그려 본 노련한 손놀림이 아니면 망치기 일쑤라고 한다. 대담하게 그은 선에서 생생한 속도감이 느껴진다.



김준근, <독 만들기>,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약노병, 울산옹기박물관

옹기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사발·접시·종지 등의 식기류를 비롯해 물독·쌀 항아리·물동이 등의 주방용기, 향로·제기 등의 제례용기, 연적·벼루·필통 등의 문방구, 약노병·부항단지·배밀이 등의 의료용기, 장군·동이 등의 운반용기, 장구·훈·부 등의 악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용기를 옹기로 만들어 썼다.

요즘은 옹기를 잘 사용하지 않아 '옹기' 하면 꽤 먼 과거를 떠올리지만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어릴 적 외갓집에 놀러 가면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옹기를 볼 수 있었다. 뒤꼍 장독대에는 시루와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을 맞춰 놓여 있었고 울타리를 대신하여 봉선화가 피어 있었다. 옹기가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부엌이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물을 저장하는 커다란 물독을 비롯해 물을 길어 나르던 물동이, 물독에서 물을 덜어 쓰거나 채소를 씻기도 하고 설거지통으로 쓰던 자배기, 쌀을 씻을 때 돌을 골라내기 쉽도록 안쪽에 홈을 만들어 놓은 함지박 등이 있었다. 부뚜막 위엔 불을 켜는 호롱이 있었고 구석진 한편에는 식초를 만드는 초병이 자리잡고 있었다. 벽에 매단 살강에는 간장병, 기름병, 수저통, 소금·깨·고춧가루 같은 양념을 담은 양념단지 등 다양한 종류의 옹기가 가득했다. 양념단지는 운반하기 쉽게 여러 개를 묶었는데 단지 개수에 따라 이단지, 삼단지, 사단지라고 불렀다. 한편, 집 바깥에 있던 뒷간에는 재와 짚이 쌓여 있었고 구석진 곳에 분뇨를 담아 운반하던 통장군과 분뇨를 논밭에 뿌릴 때 쓰던 소매통도 있었다.

여름날 밤 모깃불통에 말린 쑥을 넣어 모깃불을 피워 놓고 평상에 누워 별을 보며 밤늦도록 시시덕거리다 할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긴긴 겨울밤에는 숯불 담은 화로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두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확독, 국립민속박물관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쓰임도 모양도 특이한 별난 옹기도 있다. 여름철 음식물이 쉬 상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한 겹오가리 또는 겹단지로 불리는 옹기가 흥미롭다. 오가리는 무나 호박 등을 길게 썰어 말린 것인데 오글오글 주름 잡은 모양이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오목하게 파인 테두리의 홈에 차가운 물을 채워 단지의 윗부분을 식혀 주도록 고안되었다. 수시로



양념단지, 국립민속박물관



삼단 오가리, 울산옹기박물관

장독 뒤에 숨어 가슴 졸이던 그때가, 그러다 항아리 뚜껑이라도 깨뜨리면 등짝을 치며 혼내던 기운 팔팔한 젊은 모습의 어머니가, 모두 저 너머 먼 시간에 잠겨 있다. 기억은 오늘처럼 생생한데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리움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함께했던 옹기도 그러하다. 옹기에 쌓인 세월의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제야 눈을 뜬다. 한참 늦었다. 🐼

계윤애 회원

찬물을 갈아 주면 안에 있는 음식물이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미나 파리 등의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했다. 보통 식혜나 수정과 같은 단 음식을 넣어 개울가나 우물가에 두고 사용했다. 오늘날의 냉장고를 대신하는 앞서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옹기이다. 병아리 물병에는 일정량의 물이 항상 고여 있어 병아리들이 아무 때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병아리가 물을 마시면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물병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일정한 양의 물이 흘러내려 오는 공기압의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옹기이다.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병아리가 뛰어다니다 물을 쏟을 염려도 없었다. 민간요법으로 약노를 만들 때 쓰인 일명 오줌개라고도 불리는 약노병의 용도가 사뭇 특이하다. 약노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고 목 부분을 줄로 매달아 한달 정도 뒷간에 놓아 두면 솔잎을 통과한 오줌이 약으로 쓸 수 있는 약노가 되었다. 관가에 끌려가 매를 맞아 심하게 멍이 들거나 부었을 때 흔히 약노를 먹었다고 한다. 곡물이나 고추, 마늘 등 양념을 뺀것은 확독에는 어머니의 정성과 고달픔이 배어 있다. 확독과 확돌로 구성된 재래식 믹서인 셈이다. 내용물이 잘 갈리도록 요철을 두었다. 지금은 믹서가 있어 손가락만 까닥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힘겹게 확돌을 돌렸을 어머니 생각에 뒤늦은 회한으로 가슴이 맨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절미 쌀통인 쯤도리 항아리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검약한 생활 습관과 이웃에 대한 훈훈한 마음을 담았다. 쌀이 부족하던 시절,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줍씩 덜어 쯤도리 항아리에 따로 모아 두었다가 집안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썼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 우리네 어머니들은 쯤도리 항아리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과 배려로 정을 나누었다. 이처럼 우리네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옹기는 이제 옛 그릇이 되어 점차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병아리 물병, 한양림옹기박물관



절미 쌀통, 국립민속박물관



반디와 두 분은

반야, 발가락이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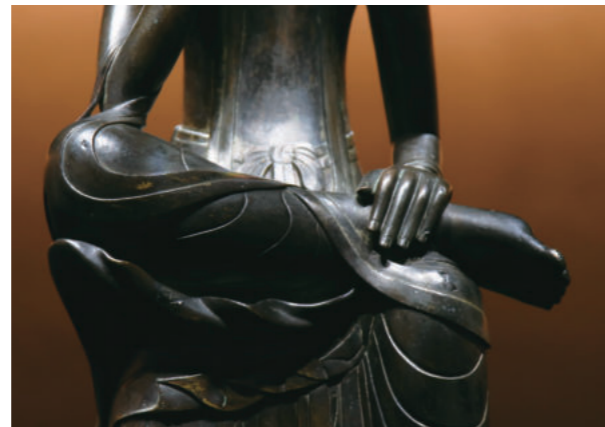
나의 인생 문화제는 반가사유상이다. 현재 '사유의 방'에 전시되어 있는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각각 그리고 함께 여러 차례 보았다. 반디(국보 78호)와 반야(국보 83호)는 2021년 9월에 있었던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이름이다. 먼저 반야를 보았고 그 후 교체 전시된 반디를 보았다. 각각의 반가사유상은 '교과서와 여러 글에서 보던 작품이구나.', '생각보다 크네.', '명칭의 정확한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제작 연대가 정확하지 않구나.', '제작한 나라가 백제인지 신라인지 정확하지 않구나.', '두 점이 다른 부분이 많구나.', '조각이 섬세하구나.', '정말 웃는 모습이네.' 같은 생각이 들었던 아름다운 조각품이었다.

2015년 <고대불교조각대전>에서 두 점을 함께 봤을 때 반디와 반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기가 조금 차이나고, 탑형보관과 삼산관, 날카로운 콧날과 조금 부드러운 콧날, 어깨선이 솟아오른 다소 딱딱해 보이는 옷과 부드러운 실루엣이 다 드러나 보이는 옷, 매듭이 있고 없음, 팔찌가 있고 없음, 선으로 처리한 단순한 옷 주름과 입체감이 도드라진 옷 주름, 왼발 밑의 두툼한 연꽃과 얇은 연꽃, 양갈래로 뿜은 머리와 민머리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단장한 '사유의 방'에 두 점의 반가사유상이 함께 전시되면서 다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전시장 입구의 한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

을 하면서 전시장에 들어섰다. 우선 전시장 자체가 새로웠다. 모나지 않고 고요하며 장엄한, 반가사유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시장이었다.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 몇 바퀴 돌면서 천천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예전에 보았던 두 점의 차이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전에도 보았을 텐데 너무나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오른발 발가락 모양이었다. 반디와 반야의 발가락이 달랐다. 반디의 오른발 다섯 발가락은 비교적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반야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은 좀 더 동글고 통통하고 발바닥 쪽을 향해 굽어 있어 힘이 잔뜩 들어간 모양이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시대의 차이인가? 지역의 특색인가? 조각가의 성향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시선을 올려 반가사유상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반



디와 반야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반디는 광대가 좀 더 튀어나와 얼굴의 음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볼도 더 통통해 보였다. 반면에 반야는 얼굴이 반디보다 평면적이고 약간 헐썩해 보였다. 그리고 이런 차이 때문인지 반디의 미소가 반야의 미소보다 좀 더 밝고 환하게 보였다. 발가락을 펴고 있는 반디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반야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착각인가? 조명 탓인가? 하면서 다시 보았지만 분명 나에게 반디의 미소가 좀 더 환하게 보였다. 그러면서 발가락의 모양과 얼굴의 미소가 자꾸 연결되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려 몸 전체를 보았을 때 왼손과 오른발의 위치와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반디는 왼손을 오른발목 위에 살짝 얹고 있으며 왼손의 손가락들이 아래쪽을 향하면서 편안하게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반면에 반야의



왼손 손가락들은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기울어져 정강이 부분에서 마치 옷 주름을 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여러 번 반디와 반야의 자세를 취해 보았다. 반디보다는 반야의 자세가 확실히 힘이 더 들어갔다.

테니스를 배울 때,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몸에 힘을 빼세요." 그때마다 난 항상 의문이 들었다. 몸에 힘은 어떻게 빼는 거지?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운동이 몸에 익숙해졌을 때 "아! 이게 힘을 빼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다. 힘을 빼는 것은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 원리가 체화되었다는 것이다. 반야의 발가락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은 원리를,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미소가 조금은 덜 만개한 것은 아닐까? 반디의 발가락과 손가락이 편안하게 놓여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고 법열法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만개한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힘을 빼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발가락의 힘을, 손의 힘을, 어깨의 힘을, 마음의 힘을 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사유의 방' 앞에 전시된 팸플릿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멈춤과 나아감을 거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 🌸

박상혜 회원

2022년도 제11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 발표

- 일시 : 2022. 5. 10.(화), 11:3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 수상논문 및 수상자

구분	수상자(소속)	분야	논문명	게재지 및 분량
금관상	김대환 (경주박물관)	고고학	신라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의의: 납관과 매납 의례의 과시와 강조	『신라문화연구』 14 21p
	강원표 (진주박물관)	고고학	무령왕릉 장례과정에서 <설치식관>의 검토	『백제학보』 38 30p
	허형욱 (중앙박물관)	미술사	국립중앙박물관 유리 건판 사진에 보이는 북한소재 불교 조각의 고찰	『미술사연구』 40 18p
은관상	장용준 (대구박물관)	고고학	후기 구석기시대의 광역네트워크 구조 - 흑요석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50 27p
	정명희 (중앙박물관)	미술사	18세기 후반 마곡사 대광보전의 재건과 불교회화 - 조선시대 불교 미술의 제작자인 화승 연구의 일환	『미술사연구』 41 32p
	이현태 (경주박물관)	역사학	7세기 후반 월성외곽의 공간적 재편과 그 의미 - 월지주변과 발천유적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59 27p
	허일권 (중앙박물관) 김해솔 (전 진주박물관)	보존 과학	조선시대 중완구의 제작 기술	『박물관보존과학』 26 22p
	최미옥 (민속박물관)	박물관학	민속주제 전시의 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 - 국립민속박물관 공간 큐레이팅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48 30p



논문요약(금관상)

2022년도 제11회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상 금관상 수상자 논문 요약

○ 김대환, 2021, 「신라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의의-납관과 매납의례의 과시와 강조」, 『신라문화연구』14: 27-48.

- 신라 중심부의 거대 고총은 지상식 적석목곽묘를 특징으로 한다.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목곽은 전대의 대형 분묘보다 내부 공간이 매우 확대되었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납관·매납 의례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또 적석부 중 축벽부적석은 그와 같은 의례를 위해 고안된 시설이며, 납관·매납 의례의 장소였다. 결국 지상식 목곽은 복잡한 의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출현했고, 축벽부적석은 그러한 의례의 장소로써 등장했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일체, 즉 하나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식 적석목곽묘는 납관·매납 의례를 강조하고 과시하는 목적으로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신라 고총의 장송 의례가 앞 시기와는 달리 묘지와 분묘에서의 제사가 매우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 강원표, 2021, 「무령왕릉 장례과정에서 <설치식관>의 검토」, 『백제학보』 38: 59-88.

- 1971년 무령왕릉의 발견은 백제 상장의례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당시 정확한 조사와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이후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관의 안장방법과 위치, 관 내 부장품의 위치 등 장례과정에 대한 고찰이 어려웠다. 이에 장례 과정을 밝히기 위해 1973년 보고서와 이후 복원안의 문제점을 살펴 정확한 유물 출토 위치와 관 안장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목관의 안장방법을 재검토하였다.

왕과 왕비의 관 무게를 추산한 결과 300kg가 넘으므로 입구가 좁고, 연도와 묘실의 크기가 협소한 왕릉 내에 무거운 관을 인력으로 안치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령왕릉의 관은 빈장지에서부터 시신이 안치된 관을 운구하여 묘실에 그대로 안치하는 <운구식 관>이 아니라, 묘실 내에 미리 설치되어 있던 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설치식 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손잡이로 추정되었던 관고리가 실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두침과 족좌에 운구 시 진동에 대비한 고정 흔적이 없는 점, 관재를 좁은 실내에서 조립이 용이하도록 안쪽에 홈을 파고 모서리를 깎아 가공한 점, 장식관못의 머리에 타격 흔적이 없는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관 내부를 3개 공간으로 나누고 시신은 가운데, 부장품은 위, 아래 공간에 안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목관 외부의 유물은 묘실 내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령왕릉의 상장례는 중국의 유교적 상장례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많았지만, 중국의 전통 상장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리 설치된 목관에 시신 안치, 관 내부 공간을 구획하여 가운데는 시신 안치공간, 위와 아래는 부장공간으로 활용한 점 등은 백제의 전통적인 장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백제가 중국 상장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묘제의 변화가 상장례의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백제 상장례 연구는 묘제의 변화와 함께 장례방식의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 허형욱, 2021,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에 보이는 북한 소재 불교조각의 고찰」, 『미술사연구』 40: 25-57.

- 이 논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사진자료인 유리건판을 활용하여 북한 지역에 있던 불교조각을 고찰한 것이다. 한국전쟁 때 북쪽에 있던 불교조각은 상당수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 유리건판은 이 상들의 복원적 고찰에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유리건판에 전하는 40여 건의 북한 지역 상들 중 13건을 선별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토지 등 상의 기본정보 확인, 도상 연구의 심화와 범위 확대, 기년작을 포함한 조각양식 연구와 편년의 참고자료라는 세 가지 효용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먼저 유리건판과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비교·검토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려 14세기 작 금동여래좌상이 황해도 해주 은적사지에서 출토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구 개성부립박물관에 전시됐던 금동여래좌상의 출처가 충청북도 진천 두타산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도상적 측면에서 고려시대의 황해도 금천군 영파리 석조보살입상, 개성 현화사지 석조여래좌상 등은 남한 지역에 전하는 동일한 유형의 상들과 비교하여 그 확산경로와 계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평안북도 용천군 성동동의 석조공작명왕상, 경기도 장단군 화장사의 지공화상좌상, 황해도 구월산 패엽사 한산보전의 문수·보현 보살병좌상 등은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았던 상들이어서 향후 도상 연구 범위의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식적으로는 고려 936년경 조성된 개성 미륵사지 석조여래입상이 고려 초 10세기 중대형 석불의 지역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원대 불교조각과 유사한 황해도 해주 신광사 보광전 보살좌상은 고려 말 14세기에 새로운 양식의 유입과 특징을 알려준다. 한편, 제작연도를 알 수 있는 상으로는 조선 1426년의 평안남도 용강군 신덕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1454년의 성불사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등이 15세기의 기년작 목록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어서 이 시기 조각사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된다.

이상과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은 오늘날 공백지대나 다름없는 북한 지역 불교조각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구에 적극 활용하면 의미있는 성과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승려의 머리카락을 미는 칼, 고려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무딘 날에도
청동의 푸른빛은 서늘합니다.
속세와의 연을
끊어 내서일까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서러워 보여서일까요.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도
합장한 두 손의 떨림도
피안의 세계에 닿아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회 장	윤재륜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상임고문	신성수							
당 연 직	민병찬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옥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감 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김교태 김남연 김승겸 김익환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전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김교태 김남연 김승겸 김익환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전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en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융(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세아제강 사장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MashupAngels 대표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이도 대표이사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회원	김대환 김영명 김영희 김재훈 김종한 남태훈 류방희 박경진 박선주 박영정 박지원 서재량 성태은 성필호 송 철 신병찬 심종현 양홍석 유승희 유창종 윤현경 이상재 이정용 정은미 최웅선 함영준 홍정도 홍진기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주)예울 이사장 회원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종합전기 대표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택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영은미술관 관장 V&S자산운용 이사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대신증권(주) 부회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인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 아울렛 상무
청마회원 김석수 김신한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전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동서식품(주) 회장 MIT Visiting Fellow (주)켄애프드 사장 두산산업차량(주)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소장가 두나무 회장 이교상 이규식 이명희 이주성 이주한 이택경 임종훈 장신하 장인우 정명훈 정재봉 (주)동남유화 회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올가니카 회장	청자회원 강승모 고기영 구동휘 구본권 구본상 구분옥 구분혁 구원경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LS 전무 LS-Nikko동계련(주) 전무 LIG 회장 (주)LK 대표이사 사장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금관회원 강덕수 경 원 권준일,구재선	전 (주)ST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은관회원 강원기 권지혜	오리는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아이에스지주 전무
--------------------------------------	---	---------------------------	------------------------------

구원희 구은성 국현영 권재현 권택환 김진호 김경영 김경희 김낙승 김녕자 김동관 김두식 김미원 김민수 김상운 김성남 김성환 김세연 김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운수 김은혜 김인순 김재열 김재주 김중학 김지태 김태현 김태훈 김택진 김현강 김희경 노재연 담서원 류중희 문수희 문윤희 민경남 민병철 민준기 박법준 박선경 박재상 박재연 박정빈 박정원 박주원 박준영 박해준 박혜성 방정오 배윤식 백진우 봉 옥 서동임 설윤석 손원탁	한성플랜지 이사 LS 네트워크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반도건설 부사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주)예울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주)삼익악기 스펙코 부회장 유리자산운용 부회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지일앤주식회사 상무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이사 서양화가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신양회 회장 두원중공업 부사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석플라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오리온 수석부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아주호텔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회원 어피티티 에퀴티 파트너스 덴톤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이디 코리아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회원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회원 시몬느 에프씨 대표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회원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케미컬 사장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훈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 관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선진 이수경 이승용 이영선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성 이우일 이우현 이운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해진 이 혁 임지선 임채현 장동진 장성진 장승준 양형재단 전영채 전윤수 정영수 정영해 정의선 정재호 정지이 정혜인 조병순 조연주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훈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 관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선진 이수경 이승용 이영선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성 이우일 이우현 이운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해진 이 혁 임지선 임채현 장동진 장성진 장승준 양형재단 전영채 전윤수 정영수 정영해 정의선 정재호 정지이 정혜인 조병순 조연주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 회원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부사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BRV Capital Management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 CSO/자동차부품장 영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금토갤러리 관장 삼보모터스 그룹 부사장 (주)에이티넵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회원 알스케어 대표이사 (주)농능 경영총괄 사장 SGC에너지(주) 부사장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대통령합건설 상무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GIO 회원 보혜양조(주) 대표이사 보혜양조(주) 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조영미 조재현 조희경 주신흥 진재욱 차가원 차원희 천석규 최신목 최성환 최세훈 최원준 최인영 최인선 최재원 최창화·정혜숙 최혜옥 최훈학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한영재 허정석 허진수 허치홍 현명관 현지호 호창성 홍범석 홍석표 홍원복,김근호 홍정국 홍정인 홍정혁 황인규 황정환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공동대표이사
경동소재 대표이사 회원 (주)가은소사이어티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 그룹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주)조광건설 회장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주)카카오/카카오에이 보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현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L Catterton 상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회원·자원봉사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 파리크라상 사장 GS리테일 상무 회원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호성공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회원 BGF 사장 BGF 부사장 남양유업(주) 상무 CNCITI에너지 대표이사 (주)케이지에프 전무	*2022. 5. 31. 기준



낙선재에서 보는 상량정